



# < 조사개요 >

## 1. 조사명

- 2025년 4/4분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조사

## 2. 조사목적

- 분기별 지역 제조업체의 체감경기 파악 및 경기 예측
- 경기 흐름에 따른 정부 및 지자체의 바람직한 정책 방향 제시

## 3. 조사대상

- 부산지역 주요 제조업체 500개체(※유효 응답 업체 259개체)

## 4. 조사방법

- 전화 및 FAX를 통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

## 5. 조사내용

- 전반적인 체감 경기
- 매출, 영업이익 등 부문별 전망
- 주요 업종별 전망

## 6. 주의사항

- 각 항목의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되었으므로 비율의 합이 100.0%가 되지 않을 수 있음

## 7. 기업경기전망지수(BSI)의 의미

$$BSI = \frac{\text{호전(증가)표시업체수} - \text{악화(감소)표시업체수}}{\text{총 유효응답업체수}} \times 100 + 100$$

※ BSI 기준치는 100이며, 100을 초과할 경우는 호전으로 표시한 업체가 악화로 표시한 업체보다 많음을 나타내고, 100 미만일 경우는 그 반대임

# 1 2025년 4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

## ■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64', 미국발 관세정책으로 연쇄적인 경기침체 우려,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와 소비둔화도 악영향

### ○ 2025년 4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'64' (전분기 대비 17p 감소)

- 글로벌 통상환경 악화, 국내 소비둔화,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전·후방산업이 위축되며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 부진 전망
- 소비 진작을 위한 경기 부양책의 수혜 업종은 음식료품, 생활용품 등 소비재 산업으로, 철강, 자동차부품 등 부산 주력산업에는 낙수 효과가 제한적
- 미국 통상정책의 불확실성, 중동전쟁 등 글로벌 리스크로 경기 전망지수는 기준치(100)를 훨씬 하회
- 특히 제조업의 평균영업이익률<sup>1)</sup>은 약 5%에 불과해,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의 경우 15%가 넘는 대미 수출관세는 경영실적 악화 초래

### ○ 형태별 BSI는 2)수출기업 '78', 3)내수기업 '61'

- 수출기업은 글로벌 관세 전쟁으로 인한 공급망 재편을 우려 하면서 전분기 대비 2p 감소
- 반면, 내수기업은 경기부양 정책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이 지속되면서 전분기 대비 20p 감소

### ○ 2025년 3/4분기 제조업 경기실적지수 '68' (전분기 대비 5p 감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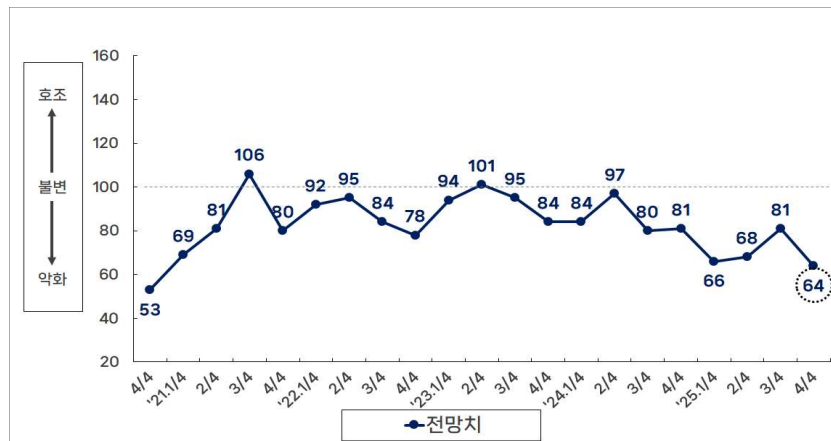
- 대미 수출 관세, 소비둔화 등의 영향으로 전분기 대비 경기실적 지수 감소

1) 한국은행 「2024년 기업경영분석」 결과 보고서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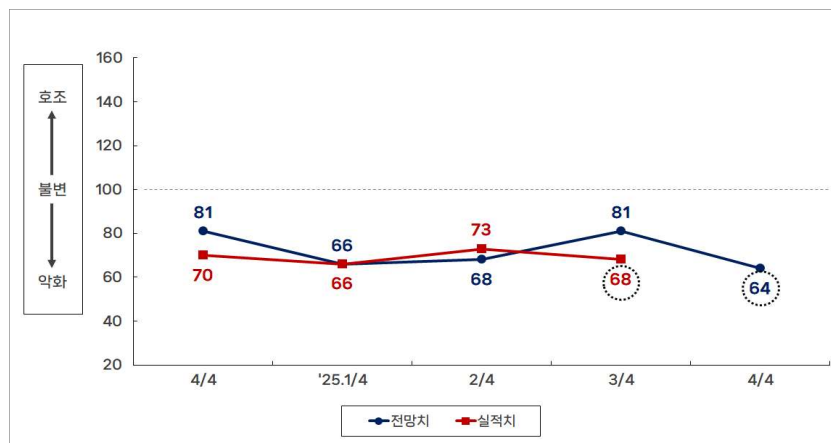
2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이상을 차지하는 기업

3) 수출이 전체 매출의 50%미만을 차지하는 기업

<최근 5년간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(BSI) 추이>



<최근 1년 분기별 BSI 실적 및 전망 추이>



○ 2025년 4/4분기 제조업 경기 악화 전망

- 전분기보다 경기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한 제조업체가 120개사 (46.3%)로 최다
- 반면, 4/4분기 경기호전 전망 업체는 27개사(10.4%)에 불과해 최근 1년 중 최저 수준

< 2025년 4/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 응답 분포 >

(단위: 개사, %)

구분	호전	불변	악화	계
응답업체 수	27	112	120	259
구성비	10.4	43.2	46.3	100.0

## 2 경영 부문별 전망

■ 2025년 4/4분기 지역 제조업 매출(69) 및 영업이익(66) 경기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각각 6p 감소, 고관세, 고환율, 건설경기 침체 등은 중후장대 산업 비중이 높은 부산지역 제조업에 악영향

### ○ 매출(69), 영업이익(66)

- 전·후방산업 경기둔화와 소비부진으로 매출 및 영업이익 악화 전망. 또한,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로 영업이익은 전분기보다 더욱 악화될 전망
- 특히, 지역 주력산업인 철강에는 50%의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서 제조업의 경영실적 악화 주도

### ○ 설비투자(67), 자금사정(68)

- 금리인하의 영향으로 지역 기업의 설비투자가 늘어나면서 지수는 전분기 대비 23p 증가한 67을 기록했으나, 미국의 고율관세 및 高환율은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준치(100)를 하회
- 자금사정(68)은 소비위축과 영업이익 감소, 높은 자금조달 비용으로 전분기 대비 8p 감소

### < 부문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5.2/4분기	'25.3/4분기	'25.3/4분기	'25.4/4분기
체감경기	73 →	68	81 →	64
매출액	71 →	69	75 →	69
영업이익	70 →	67	72 →	66
설비투자	48 →	72	44 →	67
자금사정	76 →	66	76 →	68

### 3 주요 업종별 전망

■ 전 업종에서 경기악화를 전망, 특히 전분기 유일하게 경기 호전을 전망했던 조선기자재(60)까지 4분기 업황 부진을 전망하면서, 글로벌 통상 리스크의 여파가 지역 제조업 전반에 확산

#### ○ 전기·전자(56)

- 대미 수출 관세에 대응한 상반기 조기 생산·선적의 기저효과로 하반기 물량이 줄어들며 경기 부진 전망
- 특히, 전기·전자의 호조세는 반도체·부품 업종에 국한, 이외의 전기·전자장비 기업은 오히려 관세로 인한 여파로 매출·영업 이익 감소 등 경기 부진 전망

#### ○ 조선·기자재(60)

- 원자재 가격 상승, 고율 관세 부담, 구인난으로 인해 경기 부진 전망
- 특히, 부산지역 조선·기자재업은 조선·기자재 수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조선업 호황의 낙수효과가 제한적으로 반영되어 경기부진 전망

#### ○ 자동차·부품(77)

- 완성차의 대미 수출 감소와 생산량 조정으로 인해 지역 내 협력사 또한 납품물량이 줄어들면서 '25년 4분기 경기부진 전망

#### < 주요 업종별 BSI 변화 >

구분	실적		전망	
	'25.2/4분기	'25.3/4분기	'25.3/4분기	'25.4/4분기
음·식료품	53 →	67	60 →	60
섬유제품	53 →	52	47 →	52
의복·모피	67 →	67	40 →	78
신발제품	38 →	67	31 →	60
화학·고무	83 →	65	100 →	65
1차금속	76 →	48	76 →	60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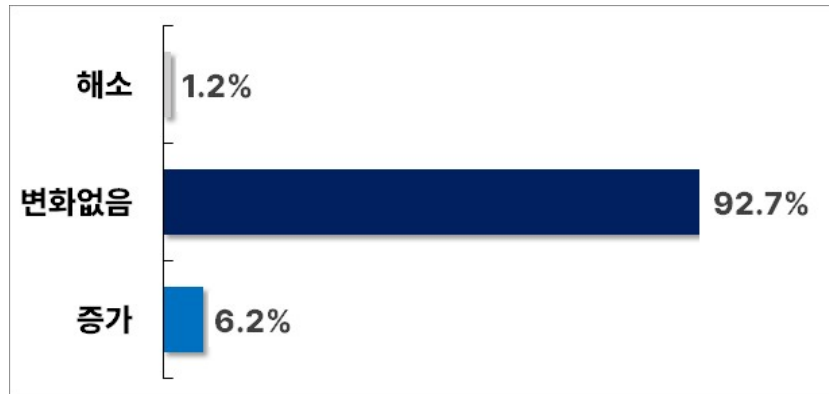
구분	실적		전망	
	'25.2/4분기	'25.3/4분기	'25.3/4분기	'25.4/4분기
조립금속	46 →	65	50 →	70
전기·전자	67 →	100	94 →	56
기계·장비	67 →	85	96 →	79
자동차·부품	100 →	77	97 →	77
조선·기자재	97 →	77	117 →	60

## 4 새정부 출범 영향

### ○ 새정부 출범 이후에도 대미수출 관세 등 무역 환경 불확실성 지속

- 새정부 출범 이후 무역환경 불확실성에 대해 지역기업은 ‘변화 없음’(92.7%), ‘불확실성 해소’(1.2%), ‘불확실성 증가’(6.2%)로 응답
- 지역 제조업은 새정부 출범으로 인해 무역환경 불확실성 해소 기대감이 컸으나, 변화를 체감하는 기업은 1.2%로 극히 소수에 불과, 특히 지난해 급등한 환율이 빠르게 안정화 될 것이란 기대와는 달리 여전히 높은 수준의 환율 지속과 대미수출 관세 충격이 이 같은 결과에 영향을 미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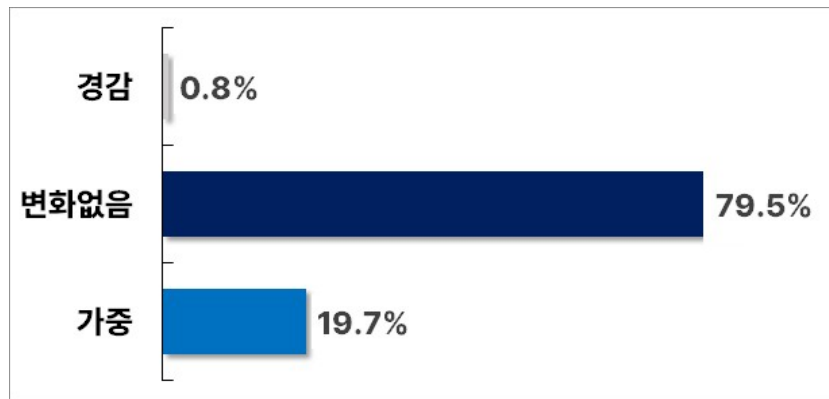
〈새정부 출범 이후 무역환경 불확실성〉



### ○ 새정부 출범 이후 지역기업의 기업경영 관련 법·제도 부담 여전

- 지역기업은 새정부 출범 이후 기업관련 법·제도 부담에 대해 ‘변함없다’(79.5%)고 가장 많이 응답했으나, ‘법·제도 부담이 경감’되었다는 응답은 0.8%에 불과, 노란봉투법, 상법 개정 등 기업규제 강화로 ‘법·제도 부담이 가중’되었다는 응답이 19.7%에 달함
- 이는, 새정부 출범 이후 기업경영 관련 법·제도가 빠르게 입법·수립된 반면, 중소기업은 자금·인력 부담으로 법·제도에 신속히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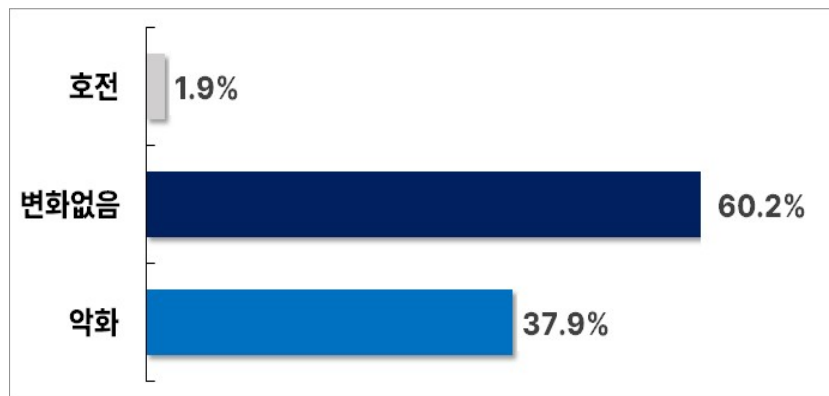
<새정부 출범 이후 기업 경영 관련 법·제도 부담>



○ 새정부 출범 이후 지역기업의 전반적인 경기 체감

- 지역기업 60.2%는 새정부 출범이후 경기 상황이 ‘변함없다’ 응답, 지역 경기 상황이 ‘호전되었다’는 응답은 1.9%에 불과한 반면, ‘악화되었다’는 응답은 37.9%로 높게 나타남
- 이는 경기부양책의 수혜가 소비재 산업에 국한되어, 지역 주력 제조업이 체감하기에는 제한적이기 때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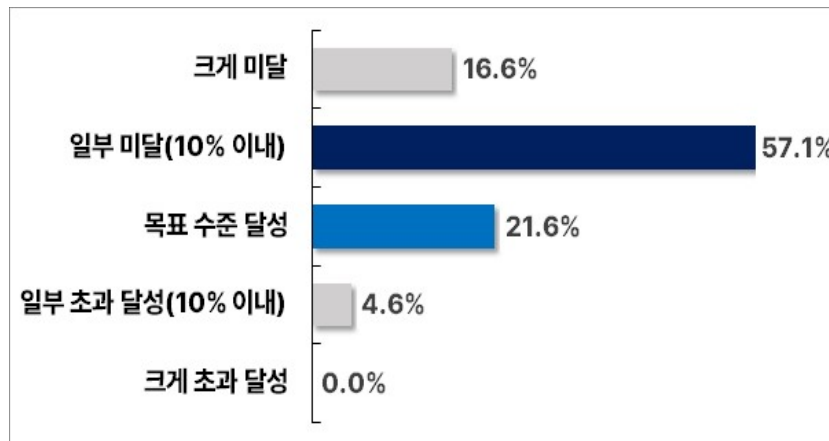
<새정부 출범 이후 전반적인 지역경기 상황>



## 5 실적 목표 및 리스크 요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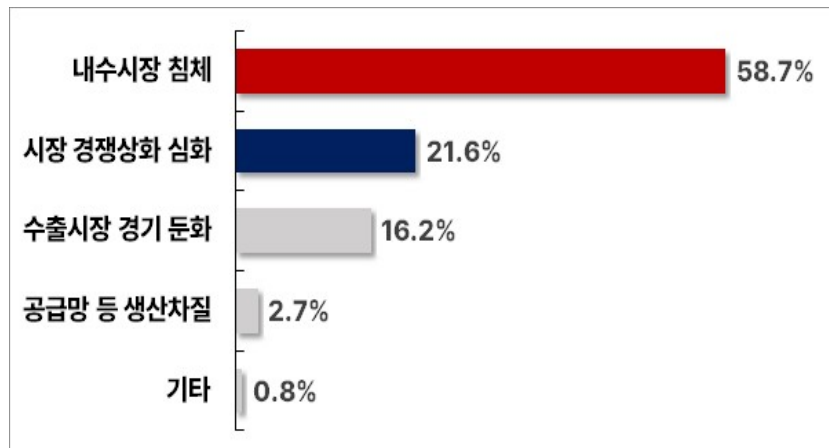
- 지역 제조업 73.7%가 연초 계획한 올해 매출 목표 미달
  - 지역기업 중 연초 매출 목표를 달성 못한 기업이 각각 57.1%(소폭 미달), 16.6%(크게 미달)로 나타남. 이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,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, 내수부진 등 경영환경 악화 때문
  - 매출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21.6%이며, 목표를 초과 달성한 기업은 4.6%에 불과

〈부산 제조업의 연초 목표 대비 매출 달성 전망〉



- 지역 기업은 ‘내수시장 침체’(58.7%)를 매출증대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꼽음
  - 이어 ‘시장 경쟁상황 심화’(21.6%), ‘수출시장 경기 둔화’ (16.2%), ‘공급망 등 생산차질’(2.7%) 등의 순
  - 글로벌 경기둔화와 내수부진의 영향으로 지역기업의 매출 신장이 부진한 상황. 특히, 원자재 가격은 상승하는 반면, 매출은 감소해 지역 기업의 경영난 가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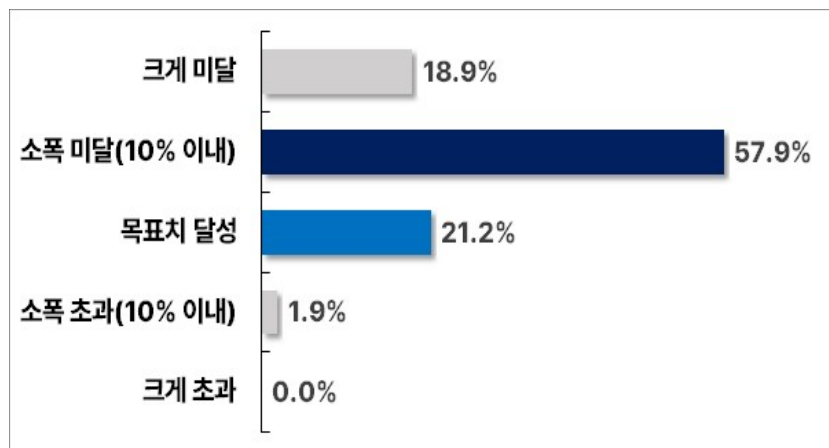
### <부산 제조업 매출 증대의 애로사항>



#### ○ 지역 제조업 76.8%가 당초 계획했던 올해 영업이익 목표에 미달

- 올해 영업이익 목표에 미달한 기업이 각각 57.9%(소폭 미달), 18.9%(크게 미달)로 나타나, 지역 제조업의 올해 영업이익 또한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남
- 이는 중국산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대, 글로벌 통상 환경 악화,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경영환경이 악화되었기 때문
- 영업이익 목표를 달성한 기업은 21.2%이며, 목표 초과 달성 기업은 1.9%에 불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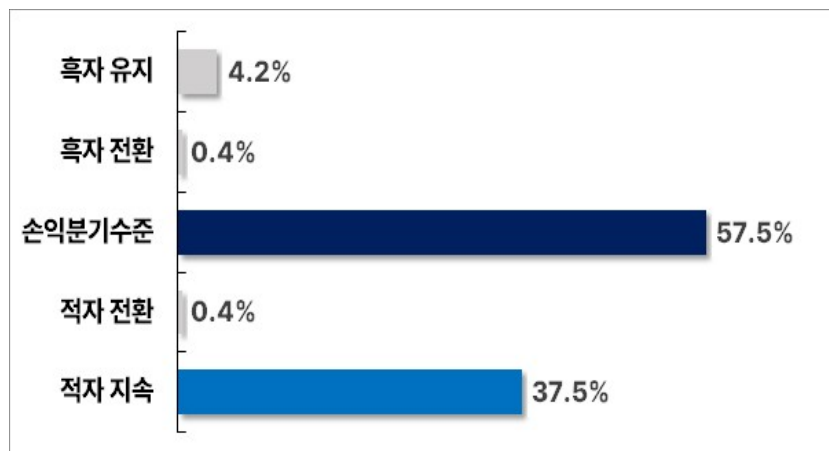
### <부산 제조업의 연초 목표 대비 영업이익 달성 전망>



○ 올해 지역 제조업 95.4%가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

- 지역 제조업은 영업이익에 대해 ‘흑자 유지’ 4.2%, ‘흑자 전환’ 0.4%, ‘손익분기 수준’ 57.5%, ‘적자 전환’ 0.4%, ‘적자 지속’ 37.5%로 응답
- 영업이익이 흑자인 지역 기업은 4.6%(흑자 유지, 흑자 전환)에 불과, 반면, 이외의 기업은 관세·운임증가·환율변동 등 비용 증가로 인해 영업이익 구조가 취약해진 것으로 분석됨

<2025년 부산 제조업의 영업이익 수준 전망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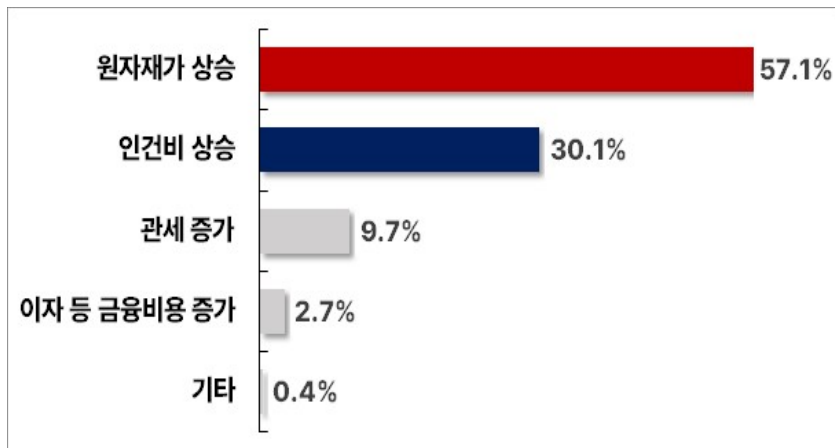


○ 지역 제조업은 영업이익을 약화시킨 가장 큰 요인으로 ‘원자재가 상승’(57.1%)을 꼽음

- 특히, 원달러 환율 기준, 환율<sup>4)</sup>은 전년 동월대비 약 5% 상승하면서 기업의 원자재가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침
- 이어 ‘인건비 상승’(30.1%), ‘관세 증가’(9.7%), ‘이자 등 금융비용 증가’(2.7%) 등의 순

4) 원달러 환율 종가기준, 한국은행 참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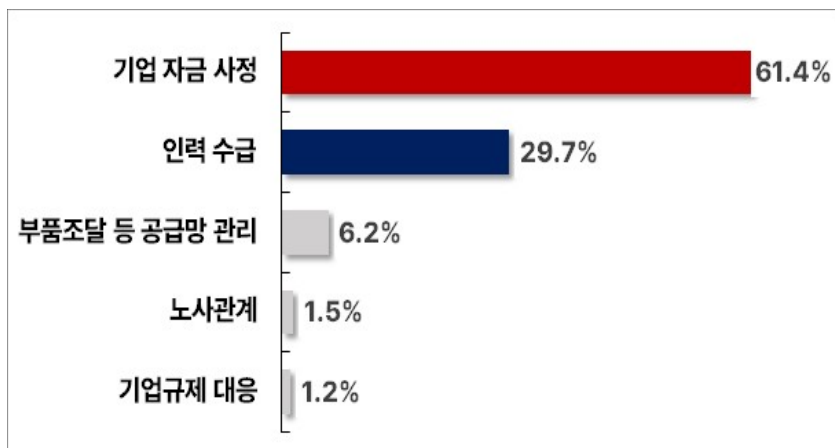
〈부산 제조업 영업이익의 주요 악화 요인〉



○ 지역 제조업은 생산 및 조직 관리 차원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‘기업 자금 사정’(61.4%)을 꼽음

- 지역 기업들은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자금사정 악화로 지역 내 한계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
- 지역 제조업에 대한 청년층의 취업 기피현상과 제조업 인력 고령화 등으로 인해 ‘인력수급’(29.7%)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꼽힘
- 이어 ‘부품조달 등 공급망 관리’(6.2%), ‘노사관계’(1.5%), ‘기업 규제 대응’(1.2%) 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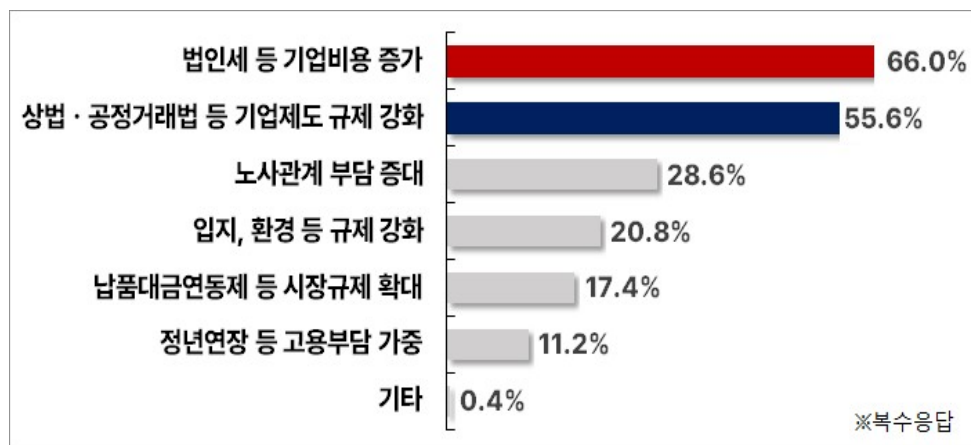
〈생산 및 조직 관리 차원의 애로사항〉



○ 지역기업 66.0%는 가장 우려되는 입법 분야로 ‘법인세 등 기업 비용 증가’를 꼽음

- 이어 ‘상법·공정거래법 등 기업제도 규제 강화’(55.6%), ‘노사관계 부담 증대’(28.6%), ‘입지, 환경 등 규제 강화’(20.8%), ‘납품대금연동제 등 시장규제 확대’(17.4%), ‘정년연장 등 고용부담 가중’(11.2%) 등의 순(※복수응답)
- 법인세 증가와 같은 비용 증가는 대부분의 기업에 즉각적인 부담으로 작용하여 기업의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며,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또한 기업 활동에 부담이 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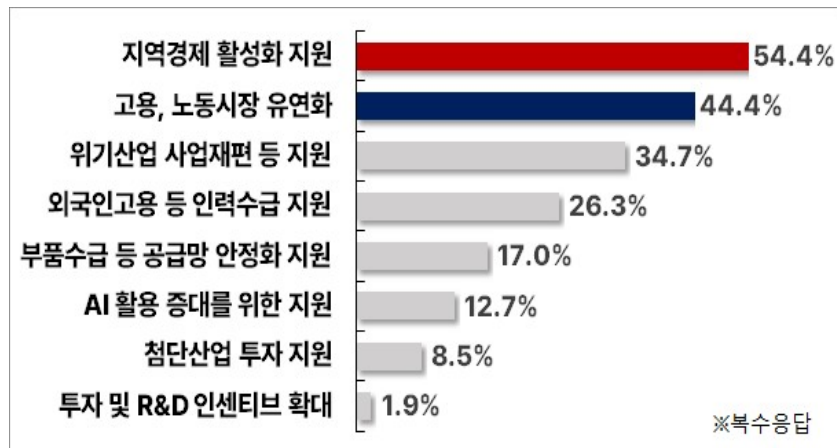
<부산 제조업이 꼽은 가장 우려되는 입법 분야>



○ 기업성장과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입법으로 ‘지역경제 활성화 지원’(54.4%)을 가장 많이 요구

- 이어 고용, ‘노동시장 유연화’(44.4%), ‘위기산업 사업재편 등 지원’(34.7%), ‘외국인고용 등 인력수급 지원’(26.3%), ‘부품수급 등 공급망 안정화 지원’(17.0%), ‘AI활용 증대를 위한 지원’(12.7%), ‘첨단산업 투자 지원’(8.5%), ‘투자 및 R&D 인센티브 확대’(1.9%) 등의 순 (※복수응답)

〈부산 제조업이 꼽은 기업성장과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입법 분야〉



##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 (BSI)

구분	실적		전망			
	'25.2/4분기	'25.3/4분기	'25.3/4분기	'25.4/4분기		
<b>체감경기</b>	<b>73</b>	<b>→</b>	<b>68</b>	<b>81</b>	<b>→</b>	<b>64</b>
매출액	71	→	69	75	→	69
영업이익	70	→	67	72	→	66
설비투자	48	→	72	44	→	67
자금사정	76	→	66	76	→	68
음·식료품	53	→	67	60	→	60
섬유제품	53	→	52	47	→	52
의복·모피	67	→	67	40	→	78
신발제품	38	→	67	31	→	60
화학·고무	83	→	65	100	→	65
1차금속	76	→	48	76	→	60
조립금속	46	→	65	50	→	70
전기·전자	67	→	100	94	→	56
기계·장비	67	→	85	96	→	79
자동차·부품	100	→	77	97	→	77
조선·기자재	97	→	77	117	→	60